

위대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지키기

성경말씀: 말3:13-18

70년 전 8월 16일, 정인보 선생의 광복절 노래

흠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 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영긴 자취니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광복(빛을 되찾다) 70년
너무 가슴 벅찬 날을 맞으며 “나는 누구며 왜 이 땅에 사는가?”

강대국들, 역사 왜곡, 통일, 성도, 킹제임스 성경 성도, <위대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지키기>

유대인 역사

6,000년 인류 역사, 노아의 홍수 이후에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을 만드신다. 500년쯤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됨(출19:5-6): 특별한 보물,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

십계명: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 우상 척결(마귀 숭배 No!),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 경배
이웃 사랑,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

그런데 재판관들의 시대, 왕정을 거치면서 극도로 타락, 왕국 분열, 극심한 우상 숭배

북왕국 이스라엘(호세아 시대, BC 721,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남왕국 유다(시드기야, BC 606-586년 3차 침략)

유대인들: 1,000킬로미터나 떨어진 바빌론 땅으로 끌려가 언어, 풍습, 종교, 문화 등의 억압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 광복, 5만 여명이 BC 536년에 귀환, 피폐한 땅, 가난한
백성

학개, 스가라 대언자(주전 520-530년경)의 지도로 둘째 성전을 지음(BC 516년)

그런데 포로 귀환 후 100년이 지나 집 짓고 먹고 살만 하니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열정이 식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집과 일을 전적으로 무시함.

말라기서는 주전 430년경, 둘째 성전을 지은 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 대상

그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지도자들인 제사장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말씀 선포, 교육, 재판, 제사, 중재 등, 겔44:23)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전에 크게 부패하기 시작함(렘5:30-31).

포로 생활 이후에도 급격히 타락함

(1) 특별히 제사장들은 위선에 빠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형식적으로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을 섬김(2:6-9).

(2) 백성들: 죄와 결합함으로써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쉽게 아내를 버리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함(2:10-17).

(3) 백성들: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함(3:8-11):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

(4) 백성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함(말3:13-15).

말라기는 이 백성들의 비난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메시아 주님의 출현과 심판을 대언하고 회개 촉구
지금 우리의 시대와 대비

대한민국 역사

우리민족은 반만년 역사 자랑, 백의민족, 특히 종교적 열심, 지적 능력 등이 유대인 이상, 특별한 민족
1850년 이후 온 세상이 변하기 시작함,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우리나라에도 개화가 시작되면서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함: 사분오열(사색당파, 수구파, 개화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권력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무지했고 전혀 적응하지 못함.

‘자주적 정치의 부재’: 국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민주적 능력이 없었다.

‘적극적 평화 외교’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즉 패망의 1차 원인은 내부 분열과 갈등이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 그 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라는 치욕을 당함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이후 35년간 역사상 유례없는 일제의 폭압과 착취를 당함.

일본은 조약 공포와 동시에 <한(韓)>이라는 국호를 폐지하고, 조선총독부를 개설하고 데라우치 임명
금융·광업·임업·어업·운수·통신 등 산업의 모든 분야 독점.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한국농업의 지배체제를 확립함과 동시에 많은 토지 탈취
1910년 12월에 내려진 '회사령'은 한국인에 의한 기업 설립을 불가능하게 만들
1908년 '사립학교령'이 내려져 한국인이 주체가 된 교육 기관의 존치가 심히 어렵게 됨
창씨개명: 일본식 성으로 바꾸는 일, 창씨를 하지 않는 사람의 자녀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끌고 가 일을 시켰으며, 식량도 주지 않음
일본어 사용 강요, 조선어 말살, 조선어학회 사건(1942년 10월), 33명이 검거되어 고문당함, 말과
글의 중요성, 위대한 문화

유대인들의 바빌론 포로 생활 버금가는 이런 고통의 시기가 끝나며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됨
광복 이후에도 여전히 좌파, 우파 등의 사상 갈등으로 나라가 혼잡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에
남한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세우기로 함, 국시: 자유와 반공, 민주 공화국

방소 매체들의 이야기, 요점이 빠져 있다. 누가 어떻게 건국, 경제 성장 이룩하였나?

목사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 몇 주 동안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등의 전기를 읽었다. 참조 자료들을
읽었다. 오늘날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알려 나라를 바르게 세울 책무가 목사의 책무
<국회 속기록 제1호>,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동의와 제청)

이승만 박사: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감신, 목사 1917년)이 나올 때 일동 기립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
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48년 8월 15일 초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대통령 직무를 다하기로 일층 결심한다"고 맹세함.

이것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이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정신
한국에 이처럼 기독교인이 많은 이유 중 1등 공신은 이승만과 윤치호, 올바른 크리스천 정신,
이승만이라는 거인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불가능

1875년에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난 그는 1904년 <독립정신>을 쓰며 꿈꿨던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의
모습을 그렸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였다. 독립 협회, 독립신문,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를
누비며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임(오직 자유와 민족).
하버드 대학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고 윌슨 총장(대통령) 집에 머물며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움, 1919-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광복 당시 이승만 같이 전 세계 동향을 파악한 지혜자는 한국에 없었다. 더욱이 확고한 믿음을 가진
그가 건국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1948년에 그는 토지개혁: 농민에게 땅을 나누어 줌

6.25동란 때 미국을 설득하고 UN군의 도움을 받아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살림(유창한 영어, 전 세계 정세 파악, 미국 대통령도 제압하는 언변과 용기)

거제도 반공 포로 석방: 13만 명의 북한군 포로, 또 사상 전쟁(반공 포로, 공산포로), 공산당의 포로 석방 반대, 유엔 참전국들과의 마찰, 1953년 6월 18일 27,000여 명이 국군의 목인 하에 탈출함(영혼의 자유, 사상의 자유), 내가 그 반공 포로의 아들, 내가 바로 그가 세운 인하대학 졸업

정권 말기에 인의 장막에 가려 1960년 4월 19일 학생 의거가 일어나고 경찰의 발포로 사망자 100명, 부상자 450명이 발생한 사태를 뒤늦게 안 이승만은 병원으로 달려가서 위문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젊은이들이 장하다.” “경찰이 백성을 죽이다니? 나라가 어떻게 백성을 죽일 수 있어?” 그리고는 “국민이 원하면 하야한다”고 전국에 방송하고는 민주주의/자유투사답게 깨끗이 승복하였다.

4.19 학생 의거는 이승만의 자유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그는 그 자유정신을 수용하고 그 정신에 의해 스스로 몰락한 인물, 한 마디로 그는 건국, 교육, 경제, 과학, 안보 대통령직을 완벽하게 수행함
김정렬 장관의 증언: “대통령의 이러한 위대한 결단은 세간의 의혹처럼 누가 권고해서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독자적인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다시 그 때를 회고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아니었다면 결코 당시의 상황에서 ‘대통령 하야 성명’이 선포되지 않았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승만의 이런 결단 이후 각 국 수반의 위로 편지에 대해 그는 이런 답장을 썼다.

“나를 위로하는 편지는 안 받겠소.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하다오. 부정을 보고 쫓기하는 백성들이 나라를 지키니 이런 날을 평생 기다렸기 때문이오.”

이승만 이후 나라가 극심한 혼동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박정희라는 위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는 과거 5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가난을 극복하였다.

그리고 이병철, 정주영 등 경제인들이 나타나 혼신의 힘을 다해 자동차, 조선, 전자, 중화학공업, 원자력 등 선진국이 독점하던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지난 7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서 세계 최고 빈국에서 경제 10대 강국으로 올라섰다.

이승만 박사의 말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믿으면 안 된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올바른 역사관,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원칙 하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도와주신 지난 70년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 사상 갈등의 해결 방법, 우리의 현실 문제

“민족끼리”가 먼저가 아니라 자유와 평화가 먼저이다. 이것이 없으면 심지어 믿음 생활도 할 수 없다. 극단적인 이상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부정부패 없이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한 나라, 이 땅에서는 불가능 사람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불가능하다. 천년왕국에서만 가능

이것을 사람의 손으로 이루겠다고 하면 절대 다수가 고통을 받는다. 대표 사례 공산주의와 나치 독일 스탈린: 수천만 명, 모택동: 수천만 명, 히틀러: 유대인 600만, 다 합치면 수천만 명 이상 희생 신앙의 최고수인 청교도들이 이주한 신대륙에도 감옥이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우리야를 죽임

나는 결코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등 지난 70년 조국의 근대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의 실수, 부정 등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룬 긍정적인 역사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가 이 시간 여기에 있다고 말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70년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으며 애국가를 부른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같은 70년을 공산독재 하에서 보낸 북한과 비교하면 이 나라와 지도자들이 위대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집권자들: 독재, 실정, 영양실조, 몸을 팔아야 함, 2차 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북한 도발 참수리호 침몰, 운영하 소령 등 6명 사망, 18명 부상), 천안함 사건(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 40명 사망, 6명 실종,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 연평도 포격(2010년

11월 23일, 대통령이 손도 쓰지 못함), 목함 지뢰 매설(2015년 8월 4일, 한 하사의 두 다리가 잘려나갔다, 한 하사는 발목이 잘려나갔다)

이것이 이상주의, 공산주의의 실체

이런 자들은 힘으로 응징해야지 타협할 대상이 아니다.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와 연합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자유, 특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우리는 이런 자유를 허락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난 70년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여기고 가르쳐야 한다.

좌파 세력과 연합하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 반공체제를 확립하여 한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곧 이루어질 것이다. 젊은이들이 바뀌고 있다. 온갖 사상 조작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말할 것이다.

한 젊은이의 말: “우리 대한민국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전진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전진할 것이다. 이승만이 1904년 <독립정신>을 쓰며 꿈꿨던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의 모습은 그렇게 가까워질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전진하기에 충분한 자유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광복 70년 이후의 우리 현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사람들은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다.

이스라엘, 포로 귀환, 100년이 지나면서 타락, 제사장과 백성 모두

우리나라도 7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물질만능주의, 영적으로 타락

성경을 버림, 신구약 구분 못하고 구약 교회, 목사들의 타락(5000억 횡령, 학위 표절, 성추행 목사도 OK), 교회의 타락(종교 통합), 세상의 극심한 타락(동성애 합법화), 믿는 자가 적고 고통 가운데 있음, 시11:3, 12:1-2, 성도들 타락

예수님의 말씀: 노아의 때, 롯의 때

국가를 위해 염려하고 살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런데 그때에 말라기 시대의 그 어둠 속에서 암울한 상황 속에서 다수와는 전혀 다른 소수가 등장함(16).

신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사랑하신다: 엘리야 당시 거의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왕상19:18), 남은 자(렘11:2-6; 9:29)

A 남은 자들의 세 가지 특징

1. 하나님을 두려워함: 죄를 짓자마자 생긴 감정(창3:10), 두려움은 믿음의 기초이다(마10:28),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잠1:7).

기독교는 한 마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창조물이 창조자를 두려워하는 것(전12:13)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을 버린다(렘2:19). 우상 숭배, 동성애, 종교통합, 불신

두려워해야 구원받는다. 지옥을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 회개 보고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히12:28-29).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거룩한 경배자들로서(시29:2) ★★★적용

공부, 직업, 교제, 예배, 가정생활, 교회 생활

2.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함: 이름은 한 인격체를 드러낸다. 생각한다(말1:6 이름을 멸시한다와 반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마18:20). 예수님: 무엇이 생각나는가? 행4:7, 10, 12, ★★★적용

3. 하나님을 증언함: 서로 서로 자주 말했다(모이기에 힘을 써야 한다, 히10:25).

그분 안에서 가족임을 확인했다(시66:16). 우리 교회도 모임이 끈끈해야 한다.

B. 하나님이 하시는 네 가지 일

1. 관심을 기울이신다(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신다). 귀를 지으신 분이 어찌 아니 들으랴?(우리의 은밀한 속삭임을 들으신다. “주여! 답답합니다. 동성애, 믿음 생활, 직장 생활 어려움!” ★★★적용

2. 모든 것을 기록하신다. 기념 책을 기록하셨다. 하나님은 일기를 쓰신다. 과거의 왕들은 사건들을 기록해 주었다(에6:1). 책(계20:12, 눅10:20). 주님의 사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빌4:3). 우리의 모든 말이 기록된다(마12:36-37). 염려를 맡기라(마6:33). ★★★적용
3. 의롭게 갚아주신다. “내가 내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그들을 내 것으로 삼겠다.” 왕들에게는 보석들이 있다. “All which the Father hath given Me, I shall lose nothing”(요 6:39).

4.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하신다(겔44:23) ★★★적용

III. 결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모여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린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초대 교회에도 늘 성도들은 소수였다.

그러나 그 소수가 국가 교회를 철폐하고 영혼의 자유를 지켜왔다.

중세 암흑시대, 또다시 전제독재국가의 출현, 소수의 성경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왔다.

Bible believers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들을 보존하고 지키며 구원을 선포해야 한다.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첫째로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우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 불쌍하지 않은가?

그리고 불신자들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억해야 한다.

지난 70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 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원한다.

선한 행위, 킹제임스 성경, 바른 구원, 바른 교회 등

이것이 광복 70년, 건국 67년을 맞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믿음으로 묵묵히 믿음 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리라 믿는다.